

극단적 선택 전 그들의 마지막 행보...

경찰 “인터넷상에서 만나 제주에 온 듯” 자살유발정보 유통행위 100일 특별단속

속보=제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4일 낮 12시5분쯤 제주시 소재 모펜션에서 A(42·여·서울)씨 등 남녀 4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 등 3명이 사망하고, B(40)씨는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 이들 모두 제주가 아닌 다른지역 출신인 점을 감안, 인터넷상에서 만나 제주에 온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미 자살정보유통자에 대한 수사 지침을

하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자살유발 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6개 종합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가운데 862명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시도를 하다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정신적 건강문제가 128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갈등 116명(13.5%), 친구와 갈등 41명(4.8%) 순으로 집계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귀포 상가건물 화재는 ‘방화’ 경찰, 60대 남 입건... 부인과 갈등에 불질러

속보=지난 12일 서귀포시 한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화재는 경찰 수사 결과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 강모(60·남)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4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아랑조를 거리 소재 상가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부인 A씨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해 A씨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찾아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과 침대, 옷 등 3곳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주택 내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67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증거자료 등 보강수사 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허위 내용 기재한 도시가스 전단지” 도, 피해 예방차원 시공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제주도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전단을 배포한 도시가스 1종 시공업체 A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정서를 제주서부경찰서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사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도시가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 도시가스 공급은 2019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나와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단을 배포한 지역은 도시가스가 언제 공급될

지 아직 확정도 안됐다”며 “공급 계획도 없는 시공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스와 LPG 등 난방연료를 비교할 때 ㄱ(루베)가 아닌 열량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도시가스가 저렴하기는 하나 전단지에 나와 있는 비교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홍보 목적의 전단지가 문제가 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시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새끼 길고양이 ↓” 제주시 길고양이 대상 중성화사업 효과 특목

제주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활성화 되면서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되는 새끼 길고양이의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59마리가 중성화됐다. 지역별로는 애월읍이 90마리(19.6%)로 가장 많았고, 조천읍 39마리(8.5%), 구좌읍·아라동 37마리(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상반기 추진실적(355마리) 대비 29.3% 증가한 것이다.

또 해마다 구조요청이 폭주했던 봄철 번식기 이후 4·6월에 태어나는 새끼고양이가 2018년 228마리에서 2019년 124마리로 45.6% 감소해 5년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올해 처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올해 처음 ‘민·관 협력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별로 모여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상반기 12개 마을의 94마리를 중성화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햇볕 좋은날... 가장 말리는 농촌 지루한 장마속 맑은 날씨를 보인 15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농민들이 수확을 마친 기장을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20일 제주 124명 적발... 78명은 면허취소

경찰, 주·야간 불문 단속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20일 동안 124명이 적발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4일까지 20일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24명이다. 124명 가운데 78명은 면허취소, 46

명은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취소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던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도 7명(면허취소 4명·정지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당분간 주·야간을 불문하는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6년 5403명, 2017년 5703명, 지난해 3918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016년 365건(사망 5명·부상 589명), 2017년 319건(사망 5명·부상 296명), 2018년 319건(사망 2명·부상 544명)으로 집계됐다.

송은범기자

음주운전 日 영사관 외교관 부인 송치

속보=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도주한 제주 일본 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배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일본인 수석 영사의 부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유 SUV 차량을 몰다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500m 가량 달아나다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사기 혐의 3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해 온 52명으로부터 약 119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블락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회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사무실용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